

반도체로 시작해 반도체로 끝... 주민들 “경기부터 살려야”



경기 용인갑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반도체 벨트'의 핵심 요충지다. 사진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용인갑 지역구에 걸린 세 후보 현수막의 모습. /서예진 기자

총선 유세현장 가보니

경기 용인갑

이상식vs이원모vs양향자 ‘3과전’ 세 후보, 반도체 관련 공약 내세워 조기착공·특성화 대학 설립 제시 주민 “손님도 없는데 같은 얘기 뿐”

경기 용인갑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반도체 벨트’의 핵심 요충지다. 용인 처인구 전반을 아우르는 해당 선거구는 용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3과전을 펼친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올 용인갑에서 세 후보 모두 이를 차질없이 진행해 처인구의 발전을

이뤄낼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 경기 용인 처인구 일대를 찾았다. 비가 내려 날은 추웠지만, 선거 운동 열기는 뜨거웠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근 지역구인이 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이상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구시가지 근처인 명지대입구 사거리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이라, 흐린 날씨에도 인근을 지나는 유권자들은 유세에 눈길을 돌렸다. 하교하는 학생들도 신호를 기다리며 탄희 의원의 연설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연설을 통해 “민생이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너무 힘들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며 “처인을 살리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상식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는 오전부터 부지런히 지역을 돌았다. 이 후보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바쁘게 모현읍으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후보를 본 일부 유권자들은 “아이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왔어?”라며 친근하게 웃어주기도 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는 ‘삼성반도체 30년, 진짜 용인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용인중앙시장 근처 대로에서 유세차에 올라 40분간 연설을 했다. 반도체 전문가로서 ‘K-칩스법’을 발의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는 모두 시스템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다. 이상식 후보는 국립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설립을 약속했고, 이원모·양향자 후보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착공·완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려운 경기로 인해 시름이 깊었다. 늦은 오후용

인중앙시장은 방문객이 적었다. 한 택시기사는 “유세차 소리 듣기 싫어서”라며 차를 돌려다른 길로 이동하기도 했다. 용인 중앙시장의 한 상인도 “유세차에서도 반도체 얘기만 들려오는데 무슨 소용이나. 손님도 없는데”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보수정당은 도농복합지역인 용인갑에서 농촌 표심을 바탕으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자를 배출했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도권에서 참패했을 때도 정찬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7.2%포인트로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치 지형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로 도심이 확대되는 사이, 농촌 지역도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됐으니 말이다. 용인의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이동·남사읍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말도 옛말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여야 후보 간 차이가 드러나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8일 경기 용인갑에 거주하는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지난 29일 발표)한 결과, 이상식 민주당 후보 45%,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36%,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 3%, 무소속 우제창 후보 2%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이상식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에) 취하지 않고 3% 진다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겠다”고 했고, 이원모 후보 측은 “선거가 시작되면 지역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함평군 공고 제2024-384호

함평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월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

함 평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901	6	국지 도로	624	월야면 월야리 중로 3-901	월야면 월야리 소로 2-901	일반도로	-	전남고시 제2002-163호 (2002.8.5.)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소로 3-901	소로 3-901	· 도로 폐지 (B=6m, L=624m)	· 장기미집행시설로 지방재정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사실임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4. 4. 1. ~ 4. 19. (공휴일 제외,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함평군청 지역개발과

다. 열람도서 : 함평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

3. 관계도서 및 도면 : “계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지역개발과(☎061-320-1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모 “각 부처와 처인구 발전 이끌 것”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힘·실천력 있는 여당 후보” 강조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히 조성

4·10 총선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44)는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처와 한 팀이 돼 처인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실천력이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 이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동행인터뷰에서 “체 강점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용인 처인구의 현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이 사퇴하자 그를 돕기 위해 1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법률지원팀에 합류했다. 이 후보는 “퇴직 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법과 절차가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절감하게 했다”고 정계 입문 계기를 설명했다.

경기 용인 처인구는 지역구의 면적이

용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곳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산지와 저수지 등이 많은 이유로 관내 발전도 더디다는 불만이 많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다. 특히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의 성공이 용인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지자체 간 유기적지원,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겠다. 이와 함께 세계적 반도체기업 및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중요한 것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다. 그것이 지역발전의 하나의 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처인구 주민들의 실생활에 외닿는 중요한 것은 경강선 연장 등 처인구의 철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문화시설 또한 유치해야 경제가 그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